

## 문제중심학습법(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 모형 연구

남궁정 \* 김미영 \*\*

### -차 례-

1. 들어가며
2. PBL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3.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 모형 설계
  - 3.1 PBL을 활용한 ‘핵심역량’ 함양
  - 3.2 국어교육과 수업을 위한 PBL 모형 개발
4.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의 실제
  - 4.1 PBL에 활용할 문제 개발
  - 4.2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의 사례
5. 나가며

---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초빙교수

\*\*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국문초록]

문제중심학습법(PBL)은 사범계열 학과에서 활용하기에 유용한 학습 모형이다. 사범계열의 학생은 대학 내에서 학습자의 지위에 있지만, 졸업 후 교육현장에서는 예비교사의 지위에 놓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을 PBL 문제의 배경으로 제시한다면, 교육적 지식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응용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BL 수업모형을 통해 예비교사에게 교사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자와의 소통 기술을 익히게 할 수도 있다. 동시에 동료교사와의 교육적 협업 능력까지 신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국어교육과 수업을 중심으로 PBL을 활용한 사범대학의 수업 모형을 설계하였다. 일시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국어교육의 특성을 고려할 때,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 모형은 순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즉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국어교육과 수업에서 사용할 PBL 문제는 수업의 목표와 밀접히 연계되는 동시에 중·고등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현장감과 연계성까지 동반해야 한다. 또한 예비교사가 쉽게 상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로 설계해야 한다.

앞으로 국어교육과의 수업에서 PBL을 활용한다면 국어과 예비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의 교육적 대처를 예상하고 미리 실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예측하여 이를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체득하게 될 것이다.

**주제어** : PBL, 문제중심학습법, PBL 모형, 문제중심학습법 모형, 국어교육, 국어교육과 수업 모형

## 1. 들어가며

일반적인 대학 교육의 교수방법은 학문적 지식을 일방적이고 선형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다 보니 학습자가 탈맥락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지금의 대학 교육은 ‘졸업 후에 당면할 현장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학습모형이 바로 PBL이다.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법/문제기반학습법)은 ‘실제적 문제(Real world problem)와 관련된 지식을 조직하는 교육 전략(Novak, 1996)’으로 1960년대에 개발된 학습법이다.<sup>1)</sup>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며 다시금 조명을 받는 학습법 중 하나이다. PBL은 학습자에게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해 현장의 분위기를 체감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구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게 하는 혁신적인 학습법이다. PBL을 활용한다면, ‘실제적 맥락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면서 지식을 내재화’하고 현실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배경에서 Barrows(1996)는 PBL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sup>2)</sup>

- ① 학습자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 ② 소집단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 ③ 교수자는 조언자,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제시되는 문제는 학습을 자극하도록 조직된다.
- ⑤ 문제는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수단이다.
- ⑥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한다.

1) 이상구, 설한국, 한신일, 「대학수학교육 ; 기반수학강좌의 자기주도형 Blended Learning-PBL 수업 모델 연구」, 『수학교육논문집』 제19권 제4호, 한국수학교육학회, 2005, 769-785면 재인용.

2) H. S. Barrows, “Bringing Problem-Based Learning to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CA: Jossey-Bass Publishers, 1996, 3-12면.

조연순(2006)은 PBL의 특징을 문제, 학습자, 교수자의 시각에서 각각 정리하였다.<sup>3)</sup>

① 쉽게 해결되거나 하나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비구조화된 ‘복잡한 문제’로 시작한다.

② 학습자가 스스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수집하고,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해결안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다.

③ 교수는 문제중심학습의 전체 과정을 설계하고, 학습자 집단을 조직하여 평가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는 촉진자 및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PBL의 특징들을 정리해보면 PBL은 실제 현장을 가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이거나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라면 PBL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전공 지식을 현실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장을 문제로 제시해야만 비로소 PBL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PBL은 잘 구성된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학습법이다.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가 고군분투하기 시작하는 것에서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PBL에서 사용되는 문제는 학습자가 학습문제로부터 학습의 의욕을 느끼고 스스로 다양한 주제 및 개념을 탐색하여 해결책을 찾으려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자 현장의 직업인으로서 접하게 될 실제 상황과 같은 문제여야 한다. 문제해결의 당위성에 깊이 공감하는 한편, 기존의 교과 지식과도 연계할 수 있는 문제라면 더 긍정적이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된다. 또한 문제의 해결을 정리한 활동보고서 발표를 통해 학습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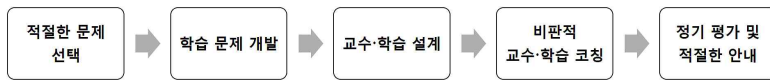
3)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 학지사, 2006, 15면.

의·토론을 통해 서로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PBL은 국어교육과와 같은 사범계열 학과에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학습모형이다. 현재 국어교육과의 학습자들은 학생의 지위이지만 졸업 후에는 교육현장에서 교수자로 활동할 예비교사이다. 따라서 국어교육과의 학습자들은 국어교육적 지식을 답습하기보다는 현장에서 국어교육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응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국어교육과 수업은 바로 이 예비교사에게 교사로서의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학습자와의 소통 기술을 익히게 하는 동시에, 동료교사와의 교육적 협업 능력까지 신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2. PBL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검토

본 PBL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PBL 모형이다. 전공별 특성을 고려하여 PBL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전공에 맞는 PBL 모형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인 단계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PBL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변형 및 수정하여 국어교육과에 맞는 PBL 모형을 개발하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PBL의 교수·학습 과정에는 여러 가지 모형 있다. 국어교육과 강의를 위한 PBL 모형을 구상하는데에 참고한 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Trop & Sage(2002)의 PBL 모형

Trop & Sage(2002)는 PBL의 절차를 ‘적절한 문제 선택’, ‘PBL 학습 문제 개발’, ‘교수·학습 설계’로 구성된 ‘문제 설계’와 ‘비판적 교수·학습 코칭’, ‘정기 평가 및 적절한 안내’로 구성된 ‘문제 실행’으로 구분

하여 [그림 1]과 같은 모형으로 제시하였다.<sup>4)</sup>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모형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 강인애 외(2007)의 PBL 모형

강인애 외(2007)는 학습자가 당면한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 나아가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학습 결과물을 완성하는 순서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하였다.<sup>5)</sup> 문제 제시를 동기 유발로서의 단계로 파악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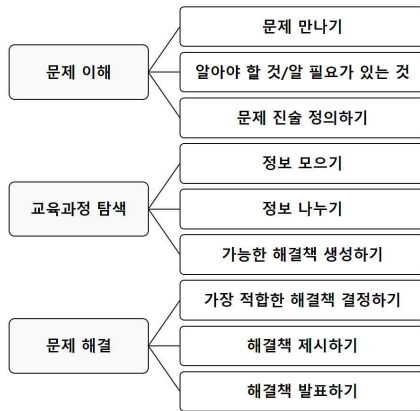
[그림 3] 박수홍·정주영(2015)의 PBL 모형

박수홍·정주영(2015)은 자기주도적 학습과 팀 활동을 통한 학습자 중심 학습을 강조하며 [그림 3]과 같은 PBL 절차를 제시하였다.<sup>6)</sup> 모형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 절차마다 학습자의 성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4) 이근수, 「PBL을 적용한 창의공학설계 교수설계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4573-4579면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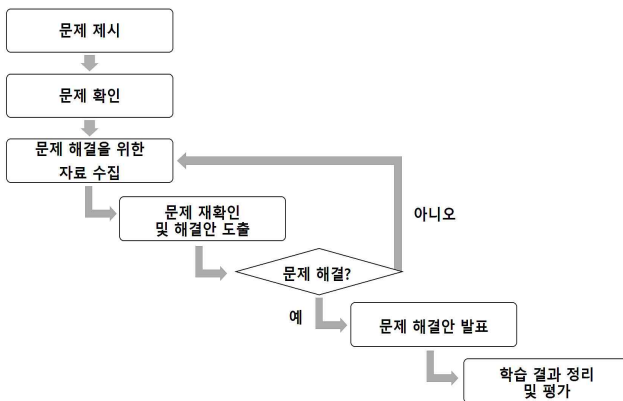
5) 강인애 외, 『PBL의 실천적 이해』, 문음사, 2007, 27면.

6) 박수홍, 정주영, 『PBL과 액션러닝』, 학지사, 2015, 22-23면.



[그림 4] IMSA(2010)의 PBL 모형

IMSA(Illinois Mathematics & Science Academy, 2010)은 PBL의 절차를 크게 ‘문제 이해하기’, ‘교육과정 탐색하기’, ‘문제 해결하기’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그 세부적인 절차까지 포함한 모형은 위의 [그림 4]와 같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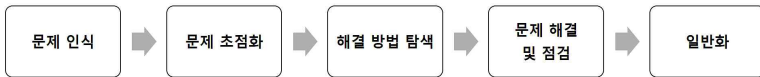


[그림 5] 최정임, 장경원(2015)의 PBL 모형

7) 나지연, 「대학수업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설계모형 개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5면 재인용.

최정임·장경원(2015)은 PBL 학습법을 알고리즘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림 5]에서 나타난 것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후에 ‘문제 재확인 및 해결안 도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되, 만약 해결이 안 되었다면 다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의 단계로 돌아가 자료를 더 수집하면 된다고 보았다.<sup>8)</sup> 하지만 ‘문제 확인’의 단계에 대한 오류까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순환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데에 그 의의가 크다.

기존의 PBL 관련된 선행 연구 중에서 국어교육과 관련 교과에서 PBL을 활용한 연구는 조재운(2016)의 ‘국어평가방법론’에 대한 수업 사례뿐이었다. 조재운은 기존의 PBL 관련 모형을 응용하여 아래 [그림 6]과 같은 절차를 제시하였다.<sup>9)</sup>



[그림 6] 조재운(2016)의 PBL 모형

조재운(2016)의 PBL 모형에서 ‘평가방법’을 발견하면 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일반적인 PBL의 절차를 따른 것일 뿐, 국어교육과의 특성이나 국어교육과의 학습자가 지닌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그러므로 국어교육과와 국어교육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PBL 모형을 새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최정임, 장경원, 『PBL로 수업하기』, 학지사, 2015, 23면.

9) 조재운,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국어평가방법론 수업 사례 연구」, 『새국어교육』 109권, 2016, 320면.

### 3.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 모형의 설계

#### 3.1 PBL을 활용한 ‘핵심역량’ 함양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PBL은 실제 현장을 가정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문제이거나 현장과 동떨어진 문제라면 PBL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전공 지식을 현실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현장을 문제로 제시해야만 비로소 PBL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이 추구하는 바와 일면 일치한다. ‘핵심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유의미하게 제시되고 있는 개념으로서 학교 교육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야 하는 역량들을 가리킨다. 국어교육과의 수업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핵심역량’이 오늘날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역량이자, 초중고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인 것은 물론, 이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에게도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를 대비한 창의융합형 인재가 지녀야 할 ‘핵심역량’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 핵심역량       | 의미와 방향   |
|------------|--|
| 자기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 지식정보 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
| 창의적 사고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   |

10)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제2022-33호)』, 교육부, 2022, 33-35면.

|           |   |
|-----------|---|
| 역량        | 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 협력적 소통 역량 |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
| 공동체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

[표]에서 제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PBL을 통하여 국어교육과 학습자(예비교사)가 함양할 수 있는 역량들과 그 일면이 일치한다. 초중고 학습자들에 대한 핵심역량 교육을 대비하려면, 예비교사도 이러한 역량을 경험하고 함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PBL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비교사인 국어교육과 학습자에게 PBL이 유용한 측면을 역량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관리 역량은 ‘자신의 삶, 학습, 건강,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지속적으로 개발·관리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sup>11)</sup> 이를 국어교육과 학습자에게 적용하면, 국어교육과 학습자들은 PBL로 제시된 문제를 풀어가며 삶, 학습, 교육적 업무로 이어지는 데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기를 수 있다. 특히 PBL을 통해 졸업 후의 삶과 진로까지 설계하면서 예비교사는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국어교육적 지식이 자기관리의 기반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 처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이란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12)</sup> 간단히 말하면 학습자가 문제를 풀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이다. 학습자는 PBL에서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수집하여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11) 교육부, 위의 고시, 33면.

12) 교육부, 위의 고시, 34면.

PBL에서는 자연스럽게 함양되는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즉 국어교육과 학습자인 예비교사도 PBL을 통해 다매체 환경에 적응하며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며 비판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셋째, 창의적 사고 역량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폭넓은 기초 지식과 자신의 전문 영역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기술·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sup>13)</sup> 국어교육과 학습자인 예비교사가 국어과 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국어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데에 PBL이 요구될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을 고려한 복잡한 PBL 문제를 통해 함양될 수 있는 역량이다. 국어교육과 수업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학습자, 현장, 동료 교사, 타 교과를 모두 고려한 PBL 문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어교육과 학습자인 예비교사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역량에 필요한 국어과 교수·학습까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넷째, 심미적 감성 역량은 ‘다양한 가치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반성적 성찰을 통해서 사회 현상들을 공감하고, 문화적 소양과 감수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사물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능력’이다.<sup>14)</sup> 이는 예비교사인 국어교육과 학습자가 가상의 학습자에게 수업을 시연하면서 함양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학교육에서는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문법교육에서는 실제의 다양한 대화 상황을 고려하면서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째, 협력적 소통 역량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는 여러 개개인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나누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sup>15)</sup> 예비교사가 학습자를 대하면서 함양되기도 하지만, 미래의 동료 교사와 다름없는 현재의 동료 학습자들과 토의·토론하면서 함양된다. 또한 수업 시연에서의 피드백을 통해서 하나의 문제 상황에 다른 학습자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함양된다.

13) 교육부, 위의 고시, 34면.

14) 교육부, 위의 고시, 34-35면.

15) 교육부, 위의 고시, 35면.

여섯째,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수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등’을 가리킨다.<sup>16)</sup> 이는 국어교육과 학습자들이 자신이 예비교사임을 인지하고 자신들이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함과 동시에, 또한 자신들이 미래 세대를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는 데에서 길러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공동체 사회의 일원 대 일원으로 교육현장의 학습자와 조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어교육과에서 PBL을 활용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첫째, PBL을 활용한다면 중등과 대학 간의 유연한 국어교육적 연계가 가능해진다. 둘째,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의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인 국어교육과의 학습자들은 위와 같은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다. 셋째, 핵심역량을 갖춘 이들이 실제 교육현장에 나아가면 미래 세대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국어교육과 학습자들의 특성상 현장은 매우 중요한 학습 환경이다. 대학의 강의실과 중·고등학교 교실 현장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통해 국어교육과 학습자가 예비교사의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어교육과 수업을 위한 PBL 모형을 개발해야 함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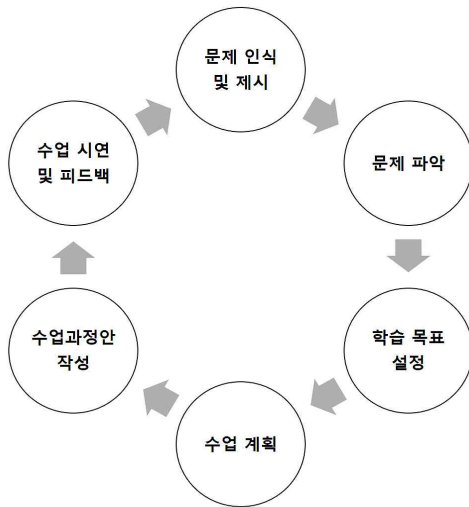
### 3.2 국어교육과 수업을 위한 PBL 모형 개발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역량’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지속적으로 지녀야 하는 능력이다. 능력이란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내부적 힘이다. 즉 핵심역량은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기존 선행연구의 PBL 모형을 국어교육과의 수업 개발에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교육이라는 교과와 특성과 국어교육과의 학습자들이 지닌 다중적 성격까

16) 교육부, 위의 고시, 35면.

지는 고려하지 못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국어교육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일시에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학습자들은 현재에는 학습자의 지위이지만 졸업 후에는 교수자의 지위에 놓이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국어교육과에서 PBL을 활용한다면, 위의 모형들처럼 선형적 절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될 것이다. 하나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어교육과 내에서 활용될 PBL 모형은 순환적인 형태로 고안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들의 PBL 모형을 수정하여 본고에서 제안하는 수업모형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국어교육과 수업을 위한 PBL 모형

본고에서 제안하는 국어교육과의 PBL 절차를, 모형의 순서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제 중등 수업 현장을 고려하여 교수자는 첫 문제를 개발·제시한다. 다음으로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시한 문제를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인 학습자는 교육과정, 교과서, 교육

현장, 가상의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계획·설계한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과정안을 작성한다. 이때 교수자는 예비교사가 매체 활용 계획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교사인 학습자는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들을 가상의 학습자로 가정하고 수업을 시연한다. 이때 학습자는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이때의 피드백에서는 교수자 및 예비교사인 학습자, 예비교사가 될 동료 학습자들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도출할 수 있다. 수업 시연에서 발견된 문제점도 좋고, 수업현장의 실제 장면을 상상해도 좋다. 각 단계별로 성찰일지를 쓰면서 드러난 점들을 새로운 문제를 도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여 또 다른 문제 제시로 이어지는 것이 본 모형의 핵심이다.

예비교사인 학습자는 새로이 제기된 문제를 PBL 절차에 따라 또다시 해결해나가면 된다. 이는 반복적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이 순환적 절차 속에서 때로는 개별 학습자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팀으로 구성된 여러 학습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필요에 따라 교수자도 학습자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과의 특성과 학과 학습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존의 PBL 모형을 응용해 적용해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교과목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 국어교육과의 교과목에는 교육 현장과 직결되는 실습 교과도 있지만 내용학도 있다. 내용학이라 일컫는 이들 교과목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감안하여 위에서 제시한 PBL 모형을 활용할 것이다.

[그림 7]의 PBL 모형을 토대로 한 국어교육과 수업을 개발하여 앞서 제기된 문제의식들을 해소해 보고자 한다. 즉 교육현장에서 당면할 학습상황을 문제로 제시하여 예비교사가 학습자에게 무엇을 교수할 것인지, 어떻게 교수할 것인지, 왜 교수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출발을 위해서는 국어교육과 모형에 맞는 PBL 문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 4.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의 실제

### 4.1 PBL에 활용할 문제 개발

PBL에 사용되는 문제는 기존의 국어교육과 수업에서 제시하는 발표 주제 정하기나 과제 내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에 대하여 조사·정리하여 소개하기’, ‘~과 ~을 비교·대조하기’, ‘~을 분석하기’ 식의 문제는 전통적인 수업 방식을 따르는 발표 위주의 수업이나 과제 중심의 수업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지양해야 한다. 간혹 이런 식의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을 PBL이라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는 PBL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 비롯된 오해와 착각이다.

PBL 문제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특성들에는 비구조화, 실제성, 관련성, 복잡성이 있다.<sup>17)</sup> 첫째, PBL의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여야 한다. 구조화된 문제는 일련의 답을 예상하고 출제하는 문제이다. 특정 주제에 대해 조사·정리·발표하는 식의 문제나 특정 사실들을 단순히 비교·대조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식의 문제는 이미 구조화된 문제이다. 구조화된 문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학습자의 답은 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수자는 매 차시마다 다른 주제의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매 차시 다른 주제의 과제나 주제를 준 교수자는 제대로 된 PBL 수업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반면 PBL의 비구조화된 문제는 다양한 해답이나 해결경로를 가지고 있다.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한다면 하나의 과제,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무궁무진한 경우의 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비구조화된 문제에 대하여 매 차시마다 학습자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현장의 상황을 대면했을 때 유연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둘째, PBL의 문제는 실제성을 담아야 한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의 실제성보다 실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인지 과정의 실제성을 말한다. 실제적 실천과 관련된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직업 환경에 준하

17) 최정임, 장경원, 앞의 책, 2015, 74-83면.

는 현장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전문가가 할 법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를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다.

셋째, PBL의 문제는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자신이 체험했거나 체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즉 기존에 습득한 지식과의 관련성, 졸업 후의 현장과의 관련성, 개인적인 경험과의 관련성을 말한다. 관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주어진 문제 상황에 학습자의 역할을 명시하는 것이 방법이다. 직접적인 현장 상황과 함께, 현장에서 수행할 역할을 부여한다면 학습자는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식과 현장, 개인과의 관련성을 더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문제라면 대학 강의에서 수행하는 일반 과제들과 별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다.

넷째, PBL의 문제는 복잡성을 지녀야 한다. 실제 현장은 매우 복잡하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 해결방안도 다양하다. 해결방안의 결과에 대한 예측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기존의 정보와 주어진 문제를 연관시키는 동시에 현장의 상황까지 고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중에 당면할 현장의 복잡성을 대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대학 강의에서 제시하는 문제들은 단순한 편이다. 단순한 문제를 풀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지식만을 답습한다. 그래서 졸업 후의 직업적인 현장에서는 그다지 활용의 쓸모가 없거나 활용의 방법을 모른다. 그러므로 PBL의 문제는 이론적 지식을 찾아 정리하는 뻘한 내용이 아닌 현장의 다변성과 복잡성을 반영해야 한다.

PBL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PBL 문제 상황 시나리오의 개발 시의 유의사항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 ① 목표 및 내용이 단지 ‘주어진 내용에 대한 습득’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PBL 환경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비효과적일 수 있다.
- ② 교육의 목표가 단지 학교라는 교육환경에서만 아니라 ‘현실’과의 연계성에서 생각될 때 오히려 PBL 환경은 더 효과적이며 효율적이다.
- ③ 학습자로 하여금 도전 의식을 느끼게 하고, 깊이 생각하며, 여러 자료를

18) 강인애, 『PBL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2003, 38-39면.

참고해야 하고, 때로 통합 교과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

④ 필요 이상의 교사 개입은 자제해야 하며, 사고와 탐색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만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어교육과에서 활용이 가능한 PBL 문제를 지속해서 고안할 필요가 있다. 국어교육과 수업에서 활용할 PBL 문제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소설교육론

2022년 봄, 나는 ○○고등학교에서 2학년 <문학> 교과를 담당하게 되었다. 기대에 부풀어 첫 수업에 들어갔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나의 기대와 달랐다.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어보니 학생들은 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도 부족했고 흥미도 없었다. 수업 자체를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교사인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학생들도 많았다. 첫 수업을 마치고 동료 교사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지만 동료교사는 ‘대충 교과서나 읽고 나오면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수업에 내가 진행할 내용은 ‘1단원 문학 작품의 이해’에 실린 이청준의 ‘서편제’이다. 그렇다면 나는 학생들에게 이 작품의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왜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 ■ 현대소설론 및 현대소설강독

여러분은 현재 ○○고등학교의 학교신문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어교사입니다. 학교신문은 분기별로 1년에 총 4번(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 발행됩니다. 학교신문의 내용은 학교신문 편집부(1학년 및 2학년 학생들로 구성)의 편집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올해 가을호 및 겨울호의 발행을 위한 하반기 편집 회의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국어교사인 여러분에게 가을호와 겨울호, 2회에 걸쳐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꼭 읽어야 할 소설을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특별 기획 시리즈의 특성을 고려하여, 약 1,000자 분량의 원고를 2회에 걸쳐 작성해야 합니다. 작가나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자료도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

육과정과 교과서를 고려하여 소설의 위계화에 따라 작품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학습자의 흥미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처럼 국어교육과 수업에서 사용할 PBL 문제는 기존의 국어교육과 수업에서 제시하는 발표 주제 정하기나 과제 내기와는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 수업의 목표와 밀접히 연계되는 동시에 중·고등학교의 수업 현장에서 일어날 만한 현장감까지 동반해야 한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PBL 문제는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 4.2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의 사례

이러한 연구를 반영하여 국어교육과의 학생들과 협의 후, 문학 교육의 방법을 연구하는 교과에서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교과는 문학교육론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학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견고히 하는 데에 목표를 둔 교과이다. 기존과 다른 문학교육의 방법을 찾고 연구하는 자기주도적인 교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교과적 특성에 주목하여, PBL을 활용한 수업을 학기 후반 4주차에 걸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sup>19)</sup>

##### ■ 주차별 강의 내용

| 주차 | 차시      | 차시별 학습내용            | 강좌 운영 방법 |
|----|---------|---------------------|----------|
| 1  | 이론 학습   |                     |          |
|    | 1~3     | ▶ PBL 개념 및 특징 소개    | 강의       |
|    | 이해 및 활용 |                     |          |
| 2  | 1       | ▶ PBL 문제 상황 시나리오 제시 | 강의       |
|    | 2       | ▶ 문제 인식 및 제시        | 토의·토론    |
|    | 3       | ▶ 문제 파악             | 토의·토론    |

19) \*\* 대학교의 국어교육과에 개설된 교과로 PBL을 활용하여 시범운영하였다.

| PBL 문제 최종 결과물 발표 |     |                  |       |
|------------------|-----|------------------|-------|
| 3~4              | 1~2 | ▶ 최종 결과물 발표 및 제출 | 조별 발표 |
|                  | 3   | ▶ 피드백            | 토의·토론 |

### ■ 1주차: PBL의 개념 및 특징 소개

문학교육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기른다는 맥락에서 전통적인 수업과는 다른 교수·학습법으로 PBL을 소개하였다. PBL은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학습법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자, 현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법이 될 수 있음도 설명하였다.

### ■ 2주차: PBL 문제 상황 시나리오 제시

PBL은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학습이다. 따라서 PBL 문제 상황 시나리오의 핵심은 학습자가 의욕을 느끼고, 다양한 주제 및 개념을 탐색하게 하는 데에 있다. 마침 1주차 강의에서 대다수의 학습자가 PBL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직접 PBL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의견들도 꽤 있었다.

그래서 2주차에서는 PBL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PBL 수업의 진행을 계획해볼 수 있도록 구성된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학습자에게 제시하였다. 국어교육과의 학습자들은 예비 교사이기 때문에 PBL의 개념 자체를 활용하여 문학교육의 방법을 연구하고 구상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학습경험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2주차는 PBL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학습자와 함께 읽어나가며, 국어과 교사라는 전문가로서 PBL을 이해하고 그 당위성에 공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림 7]에서 제시한 국어교육과 수업을 위한 PBL 모형 중 ‘문제 인식 및 제시’, ‘문제 파악’의 단계를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수행하였다. 문제 상황 시나리오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단계는 ‘학습 목표 설정’과 ‘수업 계획’, ‘수업과정안 작성’, ‘수업 시연 및 피드백’이었다. 그러나 학기 후반에 PBL을 시범운영하는 계획이었기에, [그림

7]의 모형을 조금 수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수업과정 안 작성’과 ‘수업 시연’은 부득이 생략하였다. 대신에 ‘학습 목표 설정’과 ‘수업 계획’을 활동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서로 토의·토론하는 것으로 ‘피드백’을 대체하였다.

학습자에게 제시한 PBL 문제에서는 ‘PBL을 활용하여 수업을 구상해야 함’을 문제에 제시하긴 하였으나, 국어교과 내에서 어떤 주제를 정할 것인지, 어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로 학습자가 스스로 정해야 하는 비구조화된 문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실제 교사와 유사한 인지과정의 실제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실 환경을 현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국어교사라는 역할을 명시하여 관련성을 높였다. 교실에서의 학습 목표, 학습 내용, 실제적 맥락, 문제 상황 속의 학습자 역할, 문제 상황 시나리오, 학습 효과 예측 등을 학습자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하여 PBL 문제에 대한 복잡성도 확보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핵심역량의 함양까지 모두 고려하여 PBL 문제를 구성하였다. 그 PBL 문제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등 국어과 수업은 표면적으로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법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이고 선형적으로 전달하는 교사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왔다. 나는 교사로서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던 차에, 우연히 PBL이라는 새로운 교수법을 알게 되었다.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법/문제기반학습법)은 학습자에게 현실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해 현장의 분위기를 체감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탐구하며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하게 하는 혁신적인 학습모형이다. PBL을 활용한다면, ‘실제적 맥락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식을 내재화’하고 현실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PBL을 활용하여 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어과 수업에서 실천가능한 PBL 문제를 직접 개발해보기로 했다. 학습 목표, 학습내용과 관련된 실제적 맥락, 학습과정, 문제 상황 속 학습자의 역할, 문제 상황 시나리오, 학습효과 예측 등을 구상해보되, 학습자의 흥미까지도 염두에 둘 생각이다.

위와 같은 PBL 문제로 국어교육과 학습자는 예비교사로서 ‘자기 관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과 학습자는 문학교육을 위한 PBL 문제를 고안하면서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또한 국어교육과 학습자는 교사가 되어 창의적으로 문제를 고안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예측하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어교육과 학습자는 교사와 학습자의 소통을 예견하며 ‘심미적 감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국어교육과 수업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에서 국어교육과 학습자는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까지 함양할 수 있다.

■ 3~4주차: PBL 활동 보고서의 발표 및 피드백

3~4주차의 3차시는 [그림 7]의 모형에서 ‘학습 목표 설정’과 ‘수업 계획’에 해당하는 단계를 수행하고 이를 ‘피드백’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3차시의 활동은 학습자들이 PBL 활동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의·토론을 통해 서로 피드백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이때의 피드백은 현장에서 발생할 문제를 예견하는 선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생 결과물 중 우수 사례이다. 학습자의 PBL 활동 보고서 중 하나를 선정하여 학습 목표, 학습내용과 관련된 실제적 맥락, 학습 과정, 문제 상황 속 학습자의 역할, 문제 상황 시나리오, 기대되는 학습 효과의 예측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 [우수 사례] 학생의 발표 자료

|   |
|---|
| <p>&lt;고등학생을 위한 PBL 문학 수업&gt;</p> <p>① 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과 관련해 고등학생 독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주제를 선택해 내용을 구체화한다.</li> <li>- 해당 주제를 카드 뉴스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li> </ul> <p>② 학습 내용과 관련된 실제적 맥락</p> |
|---|

- 국어는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문학은 드라마나 영화, 가요, 광고, 뮤지컬 등 다른 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 고등학생 독자들이 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SNS 홍보 자료를 구성,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하고자 한다.

- 오늘날 청소년층에서 '페이스북'은 의사소통의 수단이자 정보를 얻는 창구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카드뉴스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카드뉴스란 2014년 후반부터 언론사들이 차용하기 시작한 이미지를 주로 활용한 뉴스 포맷 중 하나로, 모바일을 위해 가독성과 이미지 비율을 높인 신개념 뉴스 포맷이다. 정보 전달을 위해 이미지를 중심으로 간단한 텍스트를 첨부하는 형식이다.

③ 학습 과정

- 소설이 영화화 된 사례, 드라마에 나오는 시, 문학 작가의 삶을 바탕으로 창작된 뮤지컬 등 또래가 관심을 가질 만한 문학적 주제가 무엇인지 탐구한다.

- 카드 뉴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들(활용할 이미지, 들어가야 하는 문구 등)을 확인한다.

- 한 컷에 들어갈 내용 요소를 구체화하여 콘티를 작성한다.

- 앞 단계에서 작성한 콘티에 대해 교사와 중간 평가를 진행, 콘티를 수정, 확정한다.

- 선택한 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참고할 문헌, 카드뉴스 컷에 활용할 사진 및 폰트 등 자료를 수집한다.

- 동료 개발자 학생들과 상의해 카드 뉴스를 개발한다.

- 실제 개발한 작품을 발표하고, 학생과 교사의 평가를 각각 진행한다.

④ 문제 상황 속 학습자의 역할

- '문학으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운영자로, 해당 페이지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카드 뉴스를 만들고자 한다.

⑤ 문제 상황 시나리오

당신은 고등학생으로, 평소에 문학 작품 즐겨 읽는 편이며, '문학으로'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종종 인상 깊게 읽은 시나 소설의 구절을 올리지만, 구독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좋아요' 수도 별로 없다. 친

구들에게 페이지를 구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몇몇 친구들만 응했을 뿐 대다수의 친구들은 무시하거나 관심 없어 했다.

그러던 중 당신과 뜻이 맞는 친구가 당신이 그 페이지의 운영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함께 페이지를 관리하게 되었다.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친구와 상의한 결과,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콘텐츠를 카드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올리면 어떨까하는 결론을 얻었다.

포토샵을 할 줄 아는 다른 친구가 카드뉴스를 작성하기로 했고, 당신은 카드뉴스에 들어갈 주제와 콘텐츠 기획을 맡게 되었다. 1주일 후에 다시 만나 실제 카드뉴스를 만들기로 한 상황에서, 당신이 1주일 후 가져가야 할 콘텐츠의 내용을 구상하고 각 컷의 콘티를 작성해야 한다.

#### ⑥ 기대되는 학습 효과

- 학습자는 ‘문학’에 관해 또래 친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문학이 실제 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깊이 고민하게 된다.

- 주제를 구체화하고 그를 뒷받침할 세부 내용을 구상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의 탐구력, 지식구성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 SNS 구독자가 한 눈에 살필 수 있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자를 고려하는 작문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위의 발표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평 위주의 피드백이 이루어졌다. 청소년 학습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 중 하나인 페이스북을 활용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긴 글을 읽거나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습자들에게 꽤 유용한 학습활동이 되리라는 점도 주목받았다. 또한 문학뿐만 아니라 문법과 같은 다른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활용이 가능한 학습활동이라는 평도 있었다. 매체 리터러시를 읽고 쓰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카드뉴스’라는 형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자칫 단순한 발표 보조 자료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학습자들이 내용보다는 형식 자체에 치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형식 자체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제와 콘텐츠 기획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피드백을 [그림 7]의 ‘문제 인식 및 제시’의 단계에 반영하여 다시 PBL 문제로 전환한다면, 국어교육과 학습자들은 작가나 주제, 장르 등을 중심으로 또 다른 수업을 새롭게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카드뉴스’라는 형식을 활용한 다른 수업을 구성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진행을 통해, 보다 순환적으로 국어교육과에서 PBL 강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비교사가 미래에 당면할 실제 수업현장의 순환성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현장의 국어과 수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연속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 7]에서 제시한 모형의 핵심은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환성에 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학습자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수업 시연도 하지 못하였고 수업 시연에서 받은 피드백을 다시 문제화하여 해결하는 단계도 실천하지 못하였다.

미진하긴 하나, 시범운영한 수업을 토대로 그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생각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의 국어교육과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추후의 연구 방향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계성도 확립할 것이다.

## 5. 나가며

PBL을 활용한 국어교육과 수업을 구상하기에 앞서, 해당 수업이 다음 중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한 PBL 문제를 추가로 개발해나가야 할 것이다.

- ①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 ② 어떤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가.
- ③ 태도나 가치관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가.

좋은 PBL 문제라면 위의 내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몇몇 수업은 개설의 당초부터 지식 획득만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므로 첫째는 PBL을 활용할 국어교육과 수업을 선정해야 하고 둘째는 그 수업에서 우선하는 목표 및 목적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식 획득을 목적으로 개설된 수업인데, 핵심역량이나 태도·가치관 함양 위주의 PBL 문제를 개발하여 제시하면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초의 수업 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면서 실제 현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특성상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각각을 최대한 함께 도모하고 함양할 수 있는 문제를 고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어교육과에서 PBL을 활용한다면 국어과 예비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교육적 대처를 사전 실습할 수 있다. 즉 PBL을 활용한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을 미리 체험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후의 연구에서는 실제 교육현장을 고려하여, 국어교육과에서 활용가능한 PBL 문제와 형식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제시하도록 하겠다.

[Abstract]

## Research on a Teaching Mode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Problem-Based Learning(PBL)

NamKung, Jung(Sungkyunkwan University)

Kim, Mi-young(Hanyang University)

Problem-Based Learning(PBL) is a useful educational model for use in teacher education programs. These students are learners as well as pre-service teachers. By presenting educational settings as the context for PBL problems, students can not only learn educational knowledge but also consider how to use and apply this knowledge in actual teaching environments. Additionally, the PBL teaching model can motivate pre-service teachers by helping them develop communication skills with learners through various media, as well as enhance their ability to collaborate educationally with fellow teachers.

So this paper has designed a teaching model for teacher education colleges, focusing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which must be continuous, the PBL-based Korean language education teaching model should follow a cyclic procedure. It should not just offer a solution to a problem but evolve by identifying new problems within that solution. Therefore, the PBL problems used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courses must be closely linked to the objectives of the lessons and relate to situations that could occur in middle and high school settings.

Additionally, they should be designed as problems that pre-service teachers can easily imagine and empathize with.

If PBL is used in future Korean language education courses, pre-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will be able to practice handling unexpected situations in the school environment beforehand. They will also learn to anticipate and solve problems that are likely to occur in the field.

**Key words** : PBL, Problem-Based Learning, PBL Model, Problem-Based Learning Model, Korean Language Education, Teaching Model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 [참고문헌]

### ■ 단행본

강인애, 『PBL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2003, 38-39면.

강인애 외, 『PBL의 실천적 이해』, 문음사, 2007, 27면.

박수홍, 정주영, 『PBL과 액션러닝』, 학지사, 2015, 22-23면.

조연순, 『문제중심학습의 이론과 실제: 문제로 시작하는 수업』, 학지사, 2006, 25면.

최정임, 장경원, 『PBL로 수업하기』, 학지사, 2015, 23면, 74-83면.

H. S. Barrows, *Bringing Problem-Based Learning to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CA: Jossey-Bass Publishers, 1996, 3-12면.

### ■ 논문 및 기타 자료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제2022-33호)』, 교육부, 2022, 33-35면.

나지연, 「대학수업을 위한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설계모형 개발」, 안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5면.

이근수, 「PBL을 적용한 창의공학설계 교수설계 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7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4573~4579면.

이상구, 설한국, 한신일, 「대학수학교육 ; 기반수학강좌의 자기주도형 Blended Learning-PBL 수업 모델 연구」, 『수학교육논문집』 제19권 제4호, 한국수학교육학회, 2005, 769-785면.

조재윤, 「문제중심학습(PBL)을 적용한 국어평가방법론 수업 사례 연구」, 『새국어교육』 109권, 2016, 320면.

<https://www.imsa.edu/extensionprograms/problem-based-learning>, 검색일 2024년 3월 11일.